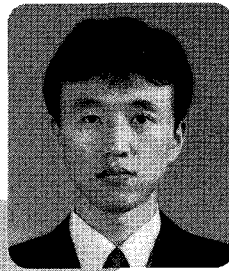


## 번식돈군에서의 사료섭취 패턴



중문개량부 김 정 일

최근 스페인 학술대회에서 임신에서 비유 단계에 이르기까지 임태자에게 맞는 간  
단하고 실질적인 사료급여 방법이 소개 되었다.

그 방법중에는 대사에너지와 라이신을 초과로 공급하는 것이 있다. 이 방법이 강조하  
는 점은 번식기간 내내 암퇘지의 신체조건을 최대로 유지하여 최대의 생산성을 나타내  
도록 하자는 것이다.

영국의 영양학자인 윌리엄 크로스는 유지를 위한 시기 이전에 좋은 신체적 조건을 만  
들도록 하는 것을 스페인 아나포크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이것은 초산돈이 번식과정  
의 초기단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먼저 초중부시에 몸속에 살과 지방을 적절히 유지하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몸속의 살과 지방들은 영양이 부족한 경우에 완충제로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영양섭취가 대사요구량에 부족할 경우에 사용되어 진다.

크로스박사는 초산돈에게 초중부 전(前) 생체중 100-130kg사육시기에 1kg당 라이신  
5.5-6.0g과 12.5MJ의 대사에너지를 함유하는 사료를 매일 약 3kg씩 급여 하도록 제안하였

다. 그 제안은 너무 빠르게 성장하거나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감으로서 임신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준다.

선발한 후 교배시까지 비교적 완만한 성장은 뼈의 형성을 돕고, 그리하여 후에 지제빈약으로 인한 도태율을 줄인다.

또한 적용되는 사료급여 양(量)은 돈사와 계절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종부 전(前) 약 2주 동안은 소위 강정사양<sup>1)</sup>(强精飼養, flushing)으로 전환된다. 근본적으로는 초산돈이 섭취하고 싶은만큼 주는 것을 의미하는 이 강정사양은 인슐린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 배란율(胚卵率)을 증가시킴으로서 잠재적인 산자수를 증가시키도록 계획된 사양방법이다. 그는 사료내(飼料內)에 전분은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즉시 소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강정사양은 종부후에 즉시 중단 되어야 한다. 크로스 박사에 따르면, 종부된 후 초기 3-4주 동안 초산돈의 사료섭취를 줄임으로서 태아생존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만들 수 있다. 과잉 급여는 혈중내(血中內) 순환하는 프로게스테론의 양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호르몬의 농도가 낮게되면 자궁의 특정 단백질분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어 태아는 죽게 된다.

이와 반대로 경산돈에서는 태아생존과 산자수에 대한 사료수준의 효과가 관측되지 않아 왔음을 지적했다. 게다가 임신초기에 풍부한 사료급여는 나이든 암퇘지, 특히 비유기(泌乳期)나 더운 여름날에 몸의 균형을 잃는 돼지에서는 분만율을 증가시켰다. 호주에서의 연구는 무더운 환경에서 돈사내에 종부된 경산돈에게 무제한 급여는 제한급여와 비교해서 수정율을 증가시켰다.

임신중 중요시기에 초산돈에 대한 사료급여 지침은 일일 2.3kg가량이 될 것이며 대사에너지는 30MJ까지 공급할 것이다. 그러나 임신후기에 그것은 태아와 유방의 적당한 발달을 하도록 좋은 신체적 조건을 유지하도록 일일 0.3-0.5kg 사이까지 증가될 것이다.

분만을 위해 16주령에 매일 2kg까지 또 다른 급격한 감소를 유도하며, 사료에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 비유사료의 대사에너지는 킬로그램 당 라이신 10g이상 13.0-13.8MJ로 임신때보다 높아야 한다.

분만후 매일 0.5kg이하로 사료섭취를 증가시켜 일일 사료섭취량이 총 7kg될 때까지 초산돈에 급여한다. 초기에 사료를 과도하게 급여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사료요구량이 최고에 이를 때인 비유후기에 가축의 섭취기호를 떨어뜨릴 수 있다.

생산자들은 암퇘지에게 사료섭취를 가장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매일 여러번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았다. 사료섭취와 비유를 위해서는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

하여야 하며, 분만사(分娩舍) 내부의 온도는 20°C 이상을 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상 1도 올라가면 일일 약 0.25kg까지 사료섭취가 줄어들 것이다. 이유와 이유직후에는 섭취하고픈 만큼 비유사료를 계속 급이 하도록 생산자들에게 권한다. 이것은 일일 3.5-4kg의 사료섭취를 의미하며, 그것은 암태지가 비유기 동안 잃었던 체중을 복구해 준다.

또한 증가된 영양공급은 난포발달과 배란을 시작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발정기부터 분만기까지 초산돈에 대한 그의 총 사료급여 방법은 표1에 있다. 그것은 초산돈에 대하여 나타냈으므로 아나포크 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던 바와 같이 각각의 산차에 대한 사료섭취는 암태지 조건에 따라 일일 0.2-0.3kg까지 증가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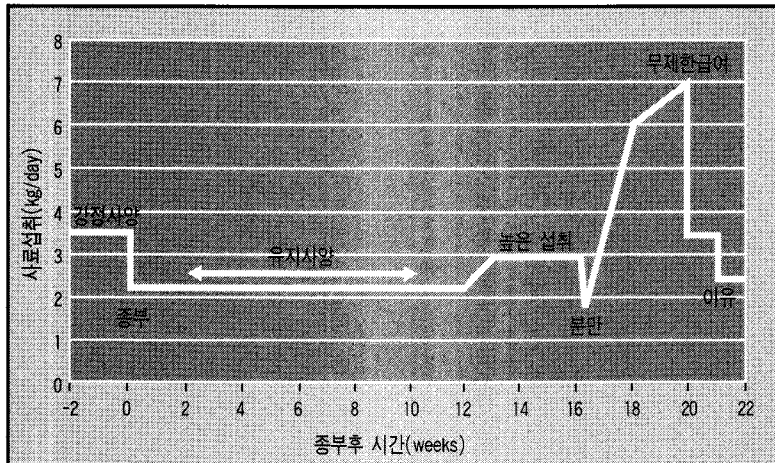


표1. 120kg 처녀돈을 위한 사양방법. 12.5MJ과 13.4MJ ME/kg의 사료가 분만과 비유시에 각각 주어진다.

1) 강정사양(强精飼養, flushing): 중부전 2~3주간 영양소를 많이 급여하는 사양방법. 일반적으로 배란수 증가, 발정촉진, 임신율 증가등의 효과가 있음. 중부

❖ 다이옥신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국내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를  
먹읍시다 ❖